

## 「원화」 切上 에 대한 우리의 憂慮



박 재 인  
(본회 진흥담당 상무)

지난 3월 30일 원달러 환율이 1,107원을 기록, IMF 쇼크 이래 28개월만에 최저치를 更新함으로써 우리 업계는 향후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더욱이 해외시장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대달러 환율은 지난 연말과 비교해 4.2%와 5.5%가 각각 절하되어 같은 기간에 우리원화가 1.9% 절상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 3개월 동안에 우리상품의 대외 가격경쟁력은 6.1%내지 7.4%나 약화된 셈이다.

외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계속 물려오고 있는 데다 수출대금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고 안정경제론의 목소리도 높아져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절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3월에 우리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전자업계의 평균적인 적정수출 환율은 엔달러 환율이 105엔일 때 원달러 환율은 1,194원으로 적정치보다도 벌써 87원이나 넘어섰고 조사업체의 70%가 이미 손익분기점의 환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아도 반도체 DRAM, TFT-LCD, 이동무선전화기 등 이른바 첨단기술 제품을 제외한 오디오, VCR, C-TV, 모니터, 자기테이프 등 대부분의 수출 주종품이 현지점에서 손익분기점의 환율에 이르렀거나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절상되면 그만큼 우리가 수출가격을 올려 받아야 하지만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면 실제로 그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도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수출이 감소되면 경기 전체가 침체되고 고용도 불안할 뿐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 실현도 어려워 IMF 쇼크 이래 모처럼 회복 국면의 경제가 또 다시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업계는 우려와 불안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초에 학계와 연구소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경험한 멕시코 등의 경제가 회복국면에서 다시 위기로 급전전 사례도 있어 정부로

서도 무역수지에 무게를 들어 지속적인 성장기조의 정책을 유지해 왔다.

우리 업계는 IMF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도 환율의 고평가로 인하여 수출의 어려움을 관계기관에 호소했지만 원화의 저평가는 물가상승, 외채상환의 부담이 되고 또 환율 자체가 시장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다가 외환위기를 맞은 뼈아픈 전례가 있어 불안한 생각을 지울수 없다.

더욱이 요즘은 언론이고 정부고 국민들이고 모두 코스닥 주가와 벤처기업의 열풍에 휩싸여 수출비상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옛날 같으면 부동산이나 고리사채 시장으로 몰릴 돈이 장래가 유망한 지식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와 개발자금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그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벤처, 코스닥 열풍으로 지난 2~3년 사이에 어느 중소·벤처기업은 자산이 수조원에 이르고 어떤 젊은 종업원은 주가상승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느니 연봉 몇억에 스킨아웃되었다고들 하니 그것도 이해는 갈만하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饑饉에서 오직 근검절약과 수출증대로 오늘날 한국경제의 기적을 이룩하고 또 최근에는 IMF 외환 위기를 선봉에 서서 극복한 수출역군들의 뇌리에는 상대적인 허탈감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천연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곤하고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보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지만 오직 노동, 기술, 지식과 같은 사람에 의한 산업을 일으켜 수출증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바로 우리 전자산업이 전형적인 노동, 기술, 지식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산업으로서 생산의 80%를 수출로 고도성장을 이끌어 작년에는 519억불의 수출로 전체수출의 3분의1이 넘는 36%를 차지하고 있는 성장 선도 산업이다.

전자산업은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산업사회 및 국민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해 나갈 유망 지식기반의 산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산업과 같은 기술 지식기반의 수출주도 산업이 원화절상과 경쟁국의 통화가치 절하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어려워지면 전체 무역수지 나아가 회복국면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전자산업이 발전해온 지난 4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아도 엔화가 크게 절상되었거나 원화가 절하되었던 해는 우리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그 반대현상이 있었던 해는 수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환율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로 기업이 원화절상분을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경우는 과거 1960년대에 엔달러 환율이 360엔에서 1990년대에는 최저 80엔까지 절상된 바 있었지만 해외투자, 기술개발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 자금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리 업계를 독려하고 있는 이도 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산업의 기반이 그만큼 튼튼한데 비해 우리는 너무 단기간에 외형위주의 성장으로 산업기반이 허약해 그것을 견디어 나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우리 산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우리업계는 임금, 유가, 금리, 원자재가 등의 상승으로 그것을 극복하는데도 힘이 겨운데 원화절상까지 가중되니 이것을 다 무엇으로 견디어 나가겠는가?

과거 1990년대에 임금, 지가, 금리, 물류비용 등이 주도해 이른바 고비용생산 시대를 맞아서도 내수위주의 산업은 그래도 어느정도 그것을 가격에 반영해 왔지만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수출산업 특히, 전자산업은 가격인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큰 폭의 국제단가 하락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다고 우리 전자산업계가 결코 유리한 환율에 의존해 수출을 증대시켜가자는 것이 아니고 또 환율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원화가 절상되거나 경쟁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면 그것으로 수출, 무역수지, 경기, 산업고도화 등 경제순환 전과정에 적신호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업계는 이제 다시한번 원가절감,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 및 수출 경영의 국제화 등을 통해 원화절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며, 정부도 수출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율의 안정화와 함께 환리스크 보험확대 등의 시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도 수출이 안되면 경제가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뿐 아니라 코스닥 벤처열풍도 지식기반의 미래산업도 모두다 곤란하다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냉철하게 되돌아 살펴보고 다시한번 수출증대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이다.